



조우니 장비 도입식

최신 Truepress Jet 520ZZ 도입으로 라인 확장 고객 초청 디지털인쇄 및 후가공 세미나도 열어

조우니(대표 이우백)는 지난 11월 3일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한 본사에서 100여 명의 고객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너폰스크린 코리아의(대표 전익성) 풀 컬러 초고속 잉크젯 프린팅시스템 Truepress Jet520ZZ의 도입식을 가졌다. 이번 도입으로 조우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트루프레스젯520 작업라인을 더욱 확장해 One to One 마케팅 시장을 대상으로 최신 생산설비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하게 됐다.

조우니는 지난 1969년, 전산용지를 생산 판매한 이래 40여 년 동안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으로 전산관련 업무설계, 처리 및 통계, 전산출력, 봉입발송에 이르기까지 DM토털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공급해 왔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조우니는 이번 추가 도입이 갖는 의미를 풀 컬러 인쇄물의 수주량 증가에 대응한 시설 확충과 풀 컬러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스크린의 트루프레스젯 520을 사용하면서 품질, 안정성, 생산 효율성, 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한 것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트루프레스젯520ZZ는 스크린의 최신 잉크젯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잉크젯 가변 프린팅시스템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변 데이터 인쇄물의 처리에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생산성, 인쇄품질, 런닝코스트 등, 균형 잡힌 제품으로 고객 맞춤형 DM, 각종 청구서, 지역신문, 맞춤형 학습지, 서적, 잡지, 카탈로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뢰성 높은 피에조 DOD(Drop On Demand) 잉크젯 헤드를 채용하고 있으며 전압에 의해 형태가 변하는 피에조 방식을 채택, 정밀도가 높은 잉크 분사가 가능해 멀티톤 인쇄를 실현하며 부드러운 계조를 재현할 수 있어 저해상도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이 갖고 있던 품질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현재 DM 시장뿐만 아니라 POD시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 고객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2. 조우니의 사옥전경
 3-5. 장비도입식에 소개된 각종 장비와 고객들

다양한 정보 제공한 세미나

스크린은 이날 도입식에 앞서 고객사들을 초청해 자사의 디지털인쇄시스템을 소개하고 후가공라인과 출력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트루프레스젯520ZZ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가격으로 기존 폼지 인쇄를 대체할 수 있으며 트랜스프로모와 같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대응하는 등 양한 소프트웨어와 워크플로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PDF/VT구조로 가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니폰스크린의 워크플로인 Equios는 JDF를 기본으로 작업하며 판매사에 의한 특징적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작업한 데이터는 PDF/VT에 저장하여 프린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로 되돌아 갈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GMC out-put 매니지먼트가 소개됐다. 고객의 데이터에서 프린터 출력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과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적화된 분류를 통해 인쇄에 적합한 포맷팅을 지원하며 주요 기능으로 멀티 input, 20개 이상의 out-put 유형 지원, 기존 생성 페이지의 재 포맷, 이메일, HTTP, SMS, 스마트폰 등 멀티채널을 통한 out-put 지원이 가능하다. 딥스코리아의 포털빌더는 별도의 개발자가 없어도 새로운 작업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과 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웹서버 접속이 필요없다.

한편, 후가공라인으로는 훈켈러(hunkeler)와 호리존이 소개됐다. 훈켈러는 지난 1922년 설립된 세계적인 후가공 및 용지전송 시스템업체이며, 호리존은 설립 60년을 맞이한 접지, 제책, 중철, 재단 분야의 전문 제조업체이다. 다양한 라인업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후가공라인 구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인쇄의 확산에 따라 후가공 장비도 디지털화가 중시되고 있으며 소량다품종의 추세에 발맞춘 구성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편의성이 높아진 조작 기능과 1:1 맞춤형 인쇄에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리존의 주요 제품군으로는 쉬운 조작성과 동급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인라인 중철라인인 스티처라이너 6000D, 디지털 고속 접지라인인 AF-566FD, 인라인 무선철 삼방재단기인 BQ470 + HT80의 라인 구성이 소개됐다. Ⓞ